“백양사 쌍계루, 스님·문인 교류 화합 성지”

백양사, 7월 1일 쌍계루서 ‘산사 인문학토크’ 개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려·조선·근현대 아우르는
수많은 학자들과 소통 이뤄져
400여 수 글, 240여 수 전해



백양사는 지난 7월 1일 경내 쌍계루에서 인문학 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지 무공 스님과 방송인 김병조씨가 쌍계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조선 8경중 하나였던 백양사 쌍계루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는 7월 1일 쌍계루 앞마당에서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 라는 주제로 특별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백학봉·쌍계루 음악극 ‘바람이 머무는 곳, 물길이 만나는 곳’ 공연과 산사 인문학 토크가 이어졌다.

이날 산사 인문학 토크에서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에 오랜 역사 속에서 유학자와 스님들이 교류했던 백양사의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며, “각진 국사께서 1350년 백양사를 중창하고 처음 쌍계루를 지었으나 홍수로 인해 훼손됐다. 1377년에 누각을 복원하고 정도전, 이색, 정몽주 등 당시 최고의 문장가들이 글을 남기면서 고려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글들이 이곳 쌍계루의 현판으로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그 후 400여 수의 많은 글들이 쌍계루에 걸려있었으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240여 수가 남아 있다”라고 쌍계루의 특별했던 역사를 설명했다.

대담자로 나선 김병조(방송인겸 한학자)씨도 쌍계루에 대해 “지역의 화합, 이념의 화합,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의 화합이 이뤄진 곳으로, 시대와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과 노소를 초월한 교류의 장소는 쌍계루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양사는 이날 산사 인문학 토크에 앞서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를 야외 음악극 형식으로 풀어 이날 선보였다.

최민씨가 극작과 연출한 음악극에는 바리톤 권용만(정몽주 역), 바리톤 김종우(정도전 역), 테너 장호영(보부상A 역), 배우 이승학(보부상B 역), 이승규(작곡, 피아노) 등이 출연해 백학봉, 쌍계루와 두 대학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전시도 눈에 띄었다. 전시에는 백양사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천과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스님의 다과가 선보여 행사의 풍미를 더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진행한 이날 인문학 토크 행사는 장성군이 주최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했다.

10돌 울산 지장정사, 광우 스님 초청 법회

7월 2일 대웅전에서 열려
광우스님 “선업 공덕 쌓길”



울산 지장정사가 창건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BTN불교TV ‘소나무’ 프로그램 진행자 광우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7월 2일 울산 지장정사 2층 대웅전에서 열린 기념법회는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축원무, 지장정사 연혁, 축사, 관음조합창단 음성공양, 내빈소개 및 주지스님 인사, 광우스님 법문, 석가모니불정근, 사홍서원, 공지사항, 폐회순으로 봉행됐다.

지장정사 주지 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개원한 지장정사가 지역불자들의 소중한 기도처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불자들과 함께 이웃에게 베푸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를 대표해 이병호 前울산불교신도회장은 “지장정사 현우스님께서 10년 만에 방향을 마련하고 신도들을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지장정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님들의 설법을 잘 듣고 회향해 부처님의 가피를 가득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주지스님과 신도님들의 원력으로 오늘날의 지장정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지장정사가 될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행복한 불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또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며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 도량에서 합장하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이다”며 “누구든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염불 한 번만 해도 깨달음에 인연이 심어지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법회 후에는 광우스님의 저서 ‘가시를 거두세요’ 사인회가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 故김영환 장군 호국 정신 기리다

7월 3일 대적광전서 추모재 봉행
혜일스님 “대장경 지킨 결정 감사”


법보종찰 해인사는 7월 3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6.25 한국전쟁 당시 폭격에서 팔만대장경을 지킨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봉행했다.

7월 3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사 교무국장 진각 스님의 사회로 봉행된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는 故 김영환 장군 행적 소개, 주요 내빈 분향 및 헌다, 봉행사(주지 혜일 스님), 추모사 , 내·외빈 소개 및 헌화 (기관장, 유가족), 추모재 의식 봉행, 유가족 인사말씀, 사홍서원, 해인사 김영환 장군 공적비 참배 순으로 봉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올해는 민족간 전쟁이 발발한지 73주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시간이 흘러도 전쟁의 아픈 상처는 해결되지 못한 아픔으로 남아 있다”면서 “해인사 사부대중은 故 김영환 장군의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가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신념으로 우리 공군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결정에 대장경과 인연있는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김영환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며, 6.25전쟁 기간 중 수많은 항공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최고의 전투조종사였다”면서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신 장군의 높은 뜻과 팔만대장경에 담긴 호국 의지를 이어받아 조국의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군본연의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도 추모사를 통해 “장군께서 현명한 판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켜 내신 덕분에 지금의 해인사가 천년고찰로 남을 수 있었고,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될수 있었다”며 “합천군은 김영환 장군님께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켜 낸 거룩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의식에 이어 故김영환 장군의 아들 김정기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추모재를 봉행해 준 해인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정기 씨는 “전쟁 중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팔만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의 아버님 ‘고 김영환 장군’ 을 가족 대표로써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개국 15돌 울산BBS ‘마음나눔 토크쇼’

6월 29일 울산 KBS홀서 열려
힐링멘토 산옹 스님 대중 강의
박현빈, 주병선 등 축하무대도



BBS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6월 29일 울산 KBS 홀에서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 특집 공개방송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위해 마련됐다.

이진용 BBS 울산불교방송 사장은 “누구보다 울산의 현 상황과 울산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산옹 스님의 명쾌한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가 우리 중생과 함께 숨을 쉬고 호흡하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가르침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시민들에게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은 항상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뒤를 돌아보고 여유를 찾는 그런 도시이기도하다”면서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힐링멘토로 나선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울산 백양사 주지)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가?’ 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삶의 목적을 설정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선지식을 만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축하공연에선 가수 박현빈과 주병선, 설하수, 마이진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큰 활력을 전했다. 이번 토크쇼는 BBS-TV를 통해 7월 12일과 14일, 16일 등 모두 3차례 방송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복지재단, 고창군 노인복지관 위·수탁

6월 26일 협약식 진행…
2028년까지 위탁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과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6월 26일 고창군청 군수실에서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위·수탁 협약식에서는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복지관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약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발전 등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운사복지재단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경우 스님은 “2007년부터 복지관을 운영해온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성 옥천사, 독립지사 선양 성지로 발돋움

6월 29일 백초월 스님 순국비서
순국 79주년 추모 다례재 봉행해
마가 스님 “선양 사업 추진 계획”


고성 옥천사는 6월 29일 고성군 영오면 금산마을 백초월 스님 순국비 앞에서 열린 스님 순국 79주기 추모 다례재는 봉행했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순국 7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6월 29일 고성군 영오면 금산마을 백초월 스님 순국비 앞에서 열린 추모다례재는 백초월 스님 행장 소개, 추모사, 봉행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면서 “백초월 스님의 순국 79주년 추모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애국애족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옥천사는 일제 치하에서 9명의 독립지사가 활동을 하신 곳으로, 고성군과 함께 올 가을 그 분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립지사들의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추모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은 고성군 영오면 금산마을에서 태어난 우리 고성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라며 “오늘 79주기 추모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의로운 삶과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겨 우리 고성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초월 스님의 위대한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의 추도사와 함께 스님의 후손 백외식 선생의 추모사가 진행됐다.

또 옥천사 옥샘합창단의 추모가, 판소리 적벽가 인간문화재 손순섭 선생, 김예빈 명장, 동편제 판소리 보존회 정향자 교수의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백초월 스님은 1878년 2월 17일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성곡리 금산부락에서 출생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대표 용성 스님, 만해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중앙학림에 한국민단본부를 설치해 독립군 자금 모집을 주도하고, 항일신문인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비밀리에 발행했다. 1919년 11월 25일(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삼청동에 태극기를 게양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옥천사는 불교계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경남 대표적인 사찰로 백초월 스님이 수시로 왕래하며 독립자금을 모으고 직접 후학을 양성하며 젊은 스님들에게 항일의지를 심어주던 곳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도일 선사 6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교황청, 7월 1일 각황사서…전통조계종 7대 총무원장 취임식



(사)대한불교교황청과 도일 스님 문도회는 우각 도일 대선사 6주기 추모다례재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제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7월 1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대본찰 각황사에서 봉행된 이날 추모 다례재는 세계불교교황청 대법황 향덕 스님,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 도일문도회장 영운 스님의 헌화와 헌다에 이어 도일 선사 행장 소개, 인사말, 추모사, 격려사, 법어, 문도회 총재 사찰명판 전달, 총무원장 취임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일 스님 추모비 앞에서 봉행된 추모법회에서 세계불교 교황청장 능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일 선사를 비롯한 역대 조사 스님들에 대한 예를 다하고 나라와 사회에 최선을 다하는 바라밀다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일문도를 대표해 효천 스님은 “세월은 흘러도 변치않는 불교역사는 역대 조사스님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다” 며 “제방의 여러 스님을 모시고 추모다례재를 모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인스님은 도일문도회 총재 향덕 스님에게 현판을 전달했다. 또 능인스님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제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에게 임명장과 종단기를 전달했다.

운봉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행자로서 정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총무원장의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일문도회 총재 향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러 문도들의 정성을 모아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종도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